

“사이비 교리 빠진 피해자들 맹목적 비난 안 돼”

임웅기 광주이단연구소장 인터뷰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 화제
정명석 '신' 자처... 여신도 성폭행
인간 심리 이용 가스라이팅 범죄
심리상담·댄스 강습 등 수법 다양



15일 광주 북구에서 만난 임웅기 광주이단연구소장이 이단 종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이비 교리에 빠진 피해자가 잘못이라는 식의 반응이 많은데요. 누구나 피해당사자가 될 수 있는 문제예요.”

최근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가 화제인 가운데 임웅기 광주이단연구소장이 “이단 종교 피해는 인간 심리를 교묘히 파고드는 세뇌 범죄”라며 “피해 내용 중심으로 구성된 방송이나 기사를 보고 단순히 종교에 빠진 피해자를 탓하면 안 될 문제”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보이스포싱, 데이트 폭력 등을 같은 맥락의 가스라이팅(타인의 심리

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 범죄라고 강조

했다. 임 소장은 “보이스포싱 등의 범죄에서 사기당한 피해자를 탓하진 않는다. 이단 종교 문제도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며 “인간은 본래 강한 사회성이 있다. 정답이 명백한 O여도 남들이 X라고 하면, 따라서 X라고 말하는 게 인간이다. 피해자 잘못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한번 의존하기 시작하면 종교에 빠져나오고 싶어도, 주위 신도들 때문에 빠져나오기 힘든 구조다”고 말했다.

JMS는 교주 정명석이 창립 초기 예지력을 발휘한 사례를 만들어 본인을 신격화했다.

이후에는 신접한 자신과의 성관계를 통해 인간성을 회복하고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다른 이단 종교 또한 신격화된 교주를 통해 신도들을 직장, 가정 등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임 소장은 “다큐 내용은 피해 사례의 극히 일부다. 정명석의 실제 판결문을 보면, 피해 사례가 변태적이다 못해 가학적이다. JMS단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에 다양한 이름으로 이단 종교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내림, 굿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토속신앙과 개화기 이후 한국에 유입된 기독교 사상이 접목되면서 이단 종교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신을 대표한다고 자처한 특정 인물을 내세우면 이단 종교다. ‘신접’이라 한다”며 “그 안에서 성폭행, 횡령 등의 범죄로 이어지는 행태”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그동안 피해 상담 사례를 들며 심리상담·댄스강습·인문학강좌 등 이단 종교의 유인 수법이 다양하다고 했다. 첫 만남을 계기로 이후 핸드폰에 앱을 깔라 한다든가, 경품권 등을 준다거나 해 집요하게 관계를 이어간다.

임 소장은 “만남이 계속 이어지고 교회 간부가 미래를 예견한 일들이 들어맞는 등의 상황에 대해 하루 빨리 조작된 것이라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신이 스스로 정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종속적 관계에서 계속 보고를 하게 된다면, 지시받는 느낌이 든다면 심각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어 임 소장은 “종교는 특정 목사, 스님 등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인격적 성장을 통해 가정과 사회를 이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특정 교리에 종속된 삶은 결코 이상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교주는 여성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18년 출소했다.

이후 또다시 신도 성추행 및 준강간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됐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글·사진=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3·15 첫 저항 광주, 기억하길”

제12회 광주3·15의거 기념식
“광주 시민 봉기 4·19 핵심”
“광주의거 국가기념일 염원”

광주3·15의거를 기억하고 민주화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 시민단체는 ‘정부가 광주3·15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5일 3·15의거 63주년을 맞아 광주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제12회 광주3·15의거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서 호남4·19혁명단체총연합회는 “광주3·15의거의 의의를 전국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광주3·15의거는 1960년 이승만 정권의 3·15부정선거에 맞서 발발한 시민봉기로 4·19혁명의 도화선으로 평가된다.

당시 오후 12시45분께 광주 시민 1200

명은 동구 금남로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의 무차별적 공격으로 수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했다. 같은 날 마산에서도 시민봉기가 일어났고, 광주와 마산의 3·15의거는 4·19혁명의 불씨로 작용했다.

정부는 4·19혁명 제50주년을 기해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공포했으나, 마산 봉기로만 국한된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광주는 호남4·19혁명단체총연합회를 발족, 연합회에서 기념식 및 관련 행사를 진행하며 광주3·15의거를 선양해왔다.

김영용 호남4·19혁명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는 “광주3·15의거로 시작된 4·19혁명의 전개 과정을 바로 정립하기 위해 역사바로세우기 운동을 3000만 범민족 서명과 함께 하고 있다”며 “지나해 12월 기준 83만5000명이 동참했다. 이 서명 운동은 광주3·15의거가 바로 설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3·15의거기념사업회와 광주시민 등이 15일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제12회 광주3·15의거 기념식을 갖고 1960년 광주3·15의거 당시를 재현하며 5·18민주광장까지 거리행진을 펼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이어 김 상임대표는 정부가 광주3·15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 상임대표는 “광주시의회가 2020년 광주3·15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지정 하도

록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내놓았다”며 “오늘을 계기로 올해에는 (광주3·15의거가) 국가기념일로 책정될 수 있기를 시민들과 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100여명의 호남4·19혁명단

체총연합회 회원 및 시민들은 기념식을 마친 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동구 5·18민주광장까지 시가행진을 진행하며 63년 전 광주의 모습을 재현했다.

강주비 기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전기공사업

태양광 발전소 분양·매매!!

- ✓ 100% 시공계약이행보증
- ✓ 분양, 시공, 인허가 토탈컨설팅!!
- ✓ 안정된 연금식 노후 보장
- ✓ 맞춤형 발전소 가능
- ✓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

태양광발전소 시공/유지/보수관리

문암(주)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안로 274
TEL:062)714-3471 FAX:062)714-3472